

News

은행 이자폭리 논란 여전... 뛰는 예적금 위에 나는 대출금리

머니S

5대 은행, 17일부터 예·적금금리 올리기 시작해 4%대 적금까지 등장... 다만 이러한 금리 인상폭은 소수 상품에만 제한적으로 적용... 대부분은 1%대 적용 중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이미 5% 넘어서... 다음달 코픽스는 더 오를 것으로 전망... 신용대출 금리는 현재 3.521~4.79%로 조만간 5% 넘어서는 것으로 전망돼...

신한은행, 은행권 최초 퇴직연금 적립금 30조원 돌파

한국경제

신한은행, 은행권 최초 퇴직연금 운용관리적립금이 30조원 돌파... 작년 12월말 기준으로 30조 1,787억원 기록
퇴직연금 수익률에서도 은행권 최고 수준 유지... 중수익률 DB형 1.61%, 10년 2.37%, DC형 1년 2.19%, 5년 2.10%, 개인형 IRP 2.01%, 10년 2.54% 등 1위

영끌·빚투족 어쩌나... 주담대 7%까지 오를수도

이코노미스트

올해 주담대 금리 최고 6%도 예상... KB국민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가 3.57~5.07%에서 3.71~5.21%로 4대 시중은행 중 가장 높아...
업계는 가계대출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자영업자 대출 리스크도 우려 중...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 만기 연장 종료시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

정보 금감원장 "금융사, 핀테크 기업 투자 촉진 위해 제도 개선"

e대한경제

정보 금감원장, 핀테크 업계와의 간담회에서 금융사들의 핀테크 기업 인수 범위 확대 및 출자시 승인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에 나설 것임을 설명
핀테크 육성 지원법 제정 추진 및 코넥스 시장의 핀테크 기업 성장 기여적 환경 조성하기로 언급... 디지털 파인더 출범 계획도 공개

자동차보험 흑자전환 기대감... 지난해 손해율 4년만에 '뚝'

파이낸셜뉴스

10개 손보사 지난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84.7%로 전년 89.7% 대비 5%p 감소세... 메리츠화재가 77.5%로 4.4%p 감소해 가장 낮은 손해율 기록
다만 월별로는 작년 12월 손해율은 전달에 비해 증가세... 11월 91%, 12월은 94.4%로 3.4%p 증가... 손해율 감소가 자동차보험료 인상 압박으로 이어질까 업계 촉각

안 팔면 각오 당국 압박에... 판매중단 보험사들, '4세대 실손' 내놓는다

머니S

금융위원회, 4세대 상품 안착을 위해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고강도 압박에 들어가... 미래에셋생명을 포함해 실손보험 판매 중단한 보험사들이 속속 4세대 상품 개발 착수
현재 중단한 보험사 중 4세대 전환을 수용하는 보험사는 ABL생명, 신한라이프, 동양생명, KDB생명 등 4개 뿐... 당국은 전환 실적을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할 방침

'4천~8천억' 어디쯤일까... 3개월 만에 재개된 30년물 모집에 이목

연합인포맥스

기획재정부, 3개월 만에 모집방식 비경쟁인수를 통한 국고채 발행 확정... 연초부터 진행된 채권 약세에 초장기물의 장기물 대비 역전 현상 심화되며 미세조정 나서...
초장기물 중심으로 모집 발행을 하되 단기물도 일부 섞을 것 언급... 국고 30년물 모집은 국고채 전문 딜러 등이 건의한 사안으로 알려져...

증권사, 미래 먹거리 위해 가상자산 포용하나

한스경제

증권사들, 오미크론 확산과 미국 양적 긴축, 금리인상 등 경제 불안요인이 커지고 있어 디지털 기술과 자산에 관심 보여...
MZ세대를 중심으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것도 한 몫... 미래에셋증권은 가상자산 수탁사업을 전담할 신설 법인 출범 계획... 증권사들의 연계사업 진출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